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귄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형제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기니	강교현	화 10am
	ACA	김행자	금 10am
다문화	나진	김릴리	수 4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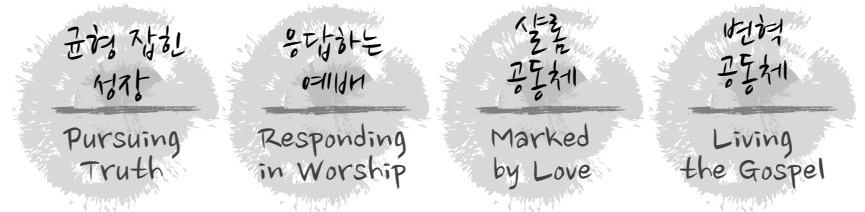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윌라멧 A, 자매: 윌라멧 C,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12/3	12/10	12/17	12/24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전체 식사	성탄예배
어린이 돌봄	임은숙, 최정아 /이찬미, 황진희	신윤선, 이주영 /이윤경, 이창열	장경림, 최철아 /김새롬, 전해경	성탄예배
주차 봉사	변동준/박진환	조성갑/박범찬	유규하/황성현	유광현/홍영기
예배 안내	아테네/샤론 (11월) & ACA/나진/기니 (12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대강절: 사랑
Advent: Love

본문: 요한계시록 21:1-7, 21:22-22:5
설교: 빌 독테롬 목사

요한계시록 21장 1-7절

- (1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 (2절)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 (3절) 그 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 (5절) 그 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 (6절)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21장 22-27절

-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 (23절)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 (24절)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 (25절)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 (26절)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 (27절)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장 1-5절

- (1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와서,
- (2절)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 (3절)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 (5절)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대강절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탄생만 생각하지만, 본래 교회 전통에는 예수님의 재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의미에서 같이 보는 대강절은 의미가 더 깊고 또한 넓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대강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곳은 눈물과 상처나 고통이 없고 죽음까지도 없는 새로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래 준비해오신 곳이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조금씩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그곳은 두려움이나 실패가 없이 우리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놀랍고도 웅장한 곳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 -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찬양을 부르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움직이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향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목상 및 적용 질문

-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받은 통찰, 원칙, 관찰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새삼 깨달은 것이나,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보십시오.
- 본문의 말씀이 계시록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무슨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무슨 이미지, 무슨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그러한 이미지나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 본문에서 보여준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되는 거룩한 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늘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본문의 말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지정학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 고대에서 도시는 산업, 상업 및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거룩한 성의 모습은 찬란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의 동산에서 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으로 옮겨가는 여러분의 생각에 무슨 영향을 주었습니까?
- 하나님께서서는 어느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 속에 거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임재에는 동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이 비전이 본 절기와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비전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습관적으로 이해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이 성육신을 좀더 깊이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본문에서 보여주는 종말에 견주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 본문에서 받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목장에서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변혁사역팀

핍박받는 전 세계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이하, 오픈도어) <https://www.opendoors.or.kr/> 는 매년, 국가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1억 명에서 올해는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연간 7000여명이 희생됩니다. 공격을 받은 교회도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2,300여 교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해는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 경험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삶, 지역사회, 국가와 교회생활의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미얀마(Myanmar)의 크리스천 박해 상황을 알려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 종교: 불교(89%) 기독교(6.2%)
- 인구: 54,836,000명, 기독교인 4,360,000명
- 박해정도: 극심함, 박해순위 28위
- 수도: 네피도(Nay Phi Daw)
- 주 박해요소: 종교적 국수주의(Religious nationalism), 독재 정치(Dictatorial paranoia), 이슬람의 압박(Islamic oppression)

미얀마(Myanmar)는 박해 점수 62점으로 2017년 세계박해순위에서 28위를 차지했다. 2016년 기록은 같은 점수에 23위였다. 교전 구역에서 정보 확인이 어려워진 탓에 폭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음에도 최종 점수는 작년과 동점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 생활 전방위에 걸쳐 기독교 탄압 강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사회와 교회 영역의 박해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박해원인

종교적 국수주의(religious nationalism):

미얀마 문화는 불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순수 불교 신앙 보존을 주장하는 과격 불교 공동체들의 행패에 대해 정부는 눈감아줄 뿐 아니라 때로는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미얀마 인구 다수(60%로 추정)를 구성하는 버마족은 불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교라는 민족적 유산에서 탈피하는 사람은 버마 공동체에서 벗어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들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탄압을 받는다. 한때 '969'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던 급진적 불교화 운동이 이제는 마바타(Ma Ba Tha)라는 악명 높은 불교 급진주의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불교 세력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얀마 정부 역시 탄압의 주체가 된다. 민족 및 종교 보호법 채택 그리고 시행은 불교화 운동이 미얀마에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다.

독재 정치(Dictatorial paranoia):

미얀마는 오랜 기간 군사 정권 치하에 있었다. 특이한 점은 현재 새로 선출된 미얀마 정부보다는 군부가 더욱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버마 군부 뜻마도(Tatmadaw)가 작성한 미얀마 헌장은 국회 의석의 1/4을 군부 지도자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 아니라 국방부, 국내 및 국경사무국 등 주요 정부 기관 역시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희망하지만 군부는 더욱 강경한 자세로 기독교인 등 소수 집단에 공격을 퍼붓고 있다. 군부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불교적 민족성과 민족적 유산을 동원하기도 한다. 차세대를 불교로 개화시키기 위한 교육 기관인 '국경지역청년 성장훈련학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소수 집단 자녀들이 이곳에 재학중이다. 이외에도 군부는 소수 민족 청년들을 마약에 중독시킴으로써 기독교 민족인 카친족(Kachin)을 비롯한 소수 민족 반동 세력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아시아 양대 아편 생산지 중의 하나가 국경 지역, 특히 카친주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태국에 걸쳐있다). 이 지역은 황금의 삼각지대로 잘 알려져 있다. 미얀마 일부 지역은 군부 뜻마도 치하에 있다. 산(Shan), 친(Chin) 그리고 카친주(Kachin) 등 기독교인 거주 지역은 광석, 옥석, 목재 등 여러 가지 자재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군부에 의해 괴롭힘과 습격을 당하고 짐꾼으로 부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인 원인으로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 대다수가 군부나 고위 정치인에 의해 운영되고 연고주의가 팽배한다. 군부는 부를 독식하며 국민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가 단일화 되어 있기를 희망한다.

이슬람의 압박(islamic oppression):

놀랍게도 불교가 지배적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슬림들은 불교의 박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2017년 세계박해순위(W.W.L) 조사 기간에는 폭력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도 소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은 불교 세력의 박해 대상일 뿐 아니라 무슬림 가족과 사회로부터도 개종의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



박해배경

2015년 11월 8일 미얀마 대선에서 반대당이었던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자유의 아이콘이 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의 지휘 아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NLD 집권은 향후 수년 간 미얀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여당이었던 군부측 통합단결발전당과 소수민족 정당 대부분이 의석을 차지하는 데에 실패했다. 게다가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기독교인의 수는 기존보다 더욱 적었다. 의외로 NLD가 부통령 겸 상원의장으로 소수민족 출신 침례교인을 임명했다. 그녀는 사실상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국가 자문'이라는 직위를 신설했고, 국가방위안보 자문위원이라는 명목하에 외무부 실권을 쥐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 국가 발전과 행정에 있어서 소수 민족을 대변하는 목소리 등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얀마 군이 아직도 강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헌장에 따르면 군부가 세 개의 주요 기관을 담당하며, 의석의 25%가 군에게 배정되어 있다. 선거 활동 기간에도 버마군은 끊임없이 카친주와 산주의 소수 민족을 공격했다. 2016년에 이르러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기타 지역으로까지 불길이 번졌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현재 폭력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마바타는 군부측 정당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지지하고 심지어 국민들이 NLD에게 투표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종교적 소수 집단, 특히 로힝야 무슬림 반대 운동을 펼쳤다. NLD 정당은 무슬림 후보를 단 한명도 공천하지 않았고, 이는 연방이나 국가적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수치 또한 인종 및 종교 보호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자신 역시 버마 귀족층 대표인 만큼 소수민족은 그녀가 상황을 호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개인영역:** 기독교 개종자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불교배경의 신자들(BBBs)은 예배를 드릴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가족들 가운데 유일한 기독교 신자인 경우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종자들은 가족들에게 수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은 위험하진 않지만 개종자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종사실이 알려진 사람들은 감시의 대상이 되며,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배척당하기도 하고,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을 가로막기 위해 심지어 가택연금에 처할 수도 있다.

***가족영역:** 개종자들 모두가 유산 상속이나 아이들 양육권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여성 일 경우, 이혼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불교배경신자들(BBBs)과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에게 세례를 주거나 기독교식 결혼 또는 장례를 지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개종자들은 미얀마의 또 다른 소수민족인 무슬림들과 같이 시민권마저 박탈당했다.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Rohingya)과 무슬림배경 기독교인들은 벵골족(Bengalese)으로 간주되며, 사실상 그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다. 불교가 막강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박해에 시달리는 기독교 개종 부모들은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문화와 종교활동을 강요하며, 그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암송하게 한다. 다마 학교(Dhama Schools)는 불교 교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불교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미얀마 전역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영역:** 기독교인들을 금지하는 지역사회도 있다. 이러한 마을에 개종자가 살고 있다면 개종자가 마을을 떠날 때까지 심한 괴롭힘을 당한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불교 승려들에게 공양하지 않거나 불교 사원을 건축, 수리를 하는데 있어 참여하지 않거나 불교 축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면 지역사회로부터 괴롭힘과 강압적 기부를 요구당하기도 하며 마을에서 추방당할 위협에 시달린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는 기독교인들은 감시 대상이며,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억압하거나 공동체의 결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 제외 당한다. 이러한 박해는 주택을 보수하기 위해 대나무를 모아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우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는 고의적으로 사회기반 시설과 의료서비스 제한으로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 지 못하게 한다. 분쟁지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락되지 않

거나 최소한으로만 지원 된다. 개종한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일례로 한 소녀는 신앙때문에 교실에서 쫓겨났으며, 또 다른 소녀는 같은 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개종하지 않은 기독교 어린이들은 비-기독교 어린이들과 함께 공부해야 하며, 엄벌을 하거나 법회에 참석하도록 강요 받는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소수민족 출신인 어린이들일 경우에는 나타라 (NaTaRa school) 불교 학교에 보내진다. 기독교 어린이들

이 등급에 따라 차별 받고 괴롭힘 당하며, 조롱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기독교인들은 지역에서 구전 되어 내려온 율법인 감마(Gamma laws) 법에 의해 또 다른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 해당 율법은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불교 승려들과 지방공무원들에 의해 수많은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

***국가 영역:** 2008년 제정된 신헌법 361조에 의하면, " 미얀마 연방공화국은 대다수 시민들에 의해 국교로 공인된 불교를 특별한 지위로 공식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362조항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애니미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불교의 특별한 지위"란 문구는 과격 불교도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

2015년 8월 이전 정부는 미얀마 최대민족인 버마족(Bamar) 급진주의 세력의 추가 지원을 얻기 위해 소수종교 4곳에 대해 종교 개종 세(Religious Conversion Bills) 부과를 채택했다. 이로써 타 종교로의 개종을 억제하고 타종교간 결혼과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며 산아제한을 도입함으로써 불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불교도 여성이 비-불교도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비-불교도 남성은 불교로 개종해야만 한다. 종교 개종에 관한 법안에 의하면, 종교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방 정부의 종교 및 이민국 관리자, 지방 행정관, 여성위원회 의장, 지방 교육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교 전환 등록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법안의 이행 시점이 언제 부터인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지만, 채택 시 매우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법안의 첫번째 타겟은 무슬림 소수민족이지만, 다른 모든 소수 민족이 동일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얀마의 몇몇 마을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법안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 사업가나 고객들에 비해 대출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기회가 줄어든다.

***교회영역:** 미얀마 전역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 신축 허가를 받는 일은 매우 어렵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한다. 이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거나 주일예배 장소를 교회가 아닌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불교가 막강한 지역 내의 교회는 감시당하며,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과격 불교도들의 박해 대상이 되기 일쑤다. 한 목회자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끊임없이 받는다고 토로했다. 모든 종교관련 출판물은 종교담당 관리부서의 검열과 확인을 받는다. 몇몇 교회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자료들을 직접 인쇄하기 시작했지만, 인쇄기를 보유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소수민족의 언어로 된 인쇄물을 출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엄격한 검열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 상황은 더욱 좋지 않으며, 흔히 교회를 반-정부 모임과 소수민족 집단끼리의 통신 거점 장소로 사용된다고 여겨진다. 카친(Kachin), 산 (Shan)과 같은 내전 지역의 교회 건물들은 전쟁을 피해 피난처로 찾아 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목표물이 되기도 한다.

***폭력:** 폭력 점수는 올해 기독교박해순위보고 (W.W.L) 기간 동안 감소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카친(Kachin)과 산(Shan) 지역이 내전 상태에 있어서, 이 지역의 박해 상황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제오픈도어는 내전 지역 안에서 기독교인 다섯 명이 살해당하고, 교회 4곳이 공격 당하거나 파괴 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납치, 강간, 강제결혼과 같은 만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내전 중인 소수민족 거주지역 내에 부상당했거나 집을 잃은 기독교 여성들을 군인들에게 강제로 결혼시키는 만행이 저질러 지고 있다.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실랑이가 되거나 인접한 태국과 중국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s://www.opendoors.or.kr/>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2017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헬로우십을 마치고 벽난로방에서 함께 식사 후, 각각의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삶 @ Willamette A (2-4pm)
- JBS @ Willamette C (2-4pm)
- 어린이 돌봄 @ 135 & 235번방 (돌봄: 황지현 & 이설아 자매)

2. 2018년 빌리지 한인부 주소록 제작

2018 빌리지 한인부 주소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3일 그리고 12월 10일에 헬로우십 테이블에 위치한 업데이트 용지에 변경된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록에 들어갈 사진을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0일 그리고 12월 17일중 원하시는 날에 헬로우십 시간 후, Fireside Room으로 오시고, 직접 본인의 사진을 넣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kf@vbconline.org로 보내주십시오.

- 주소록 문의: 이정주 & 고기식 형제
- 사진촬영 문의: 김진우 형제

3. 금주 수요일예배 (12/6)

금주 수요일예배에서는 길광야 & 남소리 선교사 (105도 목장 동역선교사, 컴미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니다.

4. 새싹회 임시모임 (12/10)

지난 임시총회의 결의 사항에 따라, 새싹회 회비 잔금 사용건을 논의하기 위한 새싹회 임시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12월 10일 (주일) 1:30pm
- 장소: Fireside Room (벽난로방)

5. 날마다 솟는 샘물 (12월호)

12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십에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 공동체 소식

1. 득남: Mark Mace & 유양위 가정

지난 11월 20일, Mark Mace 형제와 유양위 자매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James Hawon Mace)을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축복하며, 교우들의 축하를 바랍니다.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 1) 대강절 기간동안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의 현현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큰 선물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기온 저하와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the greater Portland metro area에 늘어나고 있는 홈리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주기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 포인세티아 픽업 (12/2(토), 12/3(주일), 각 예배 후 @ Columbia B)

중고등부 사역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문하신 포인세티아는 12/2(토),3(일) Columbia B에서 픽업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Beth Erickson, BethE@vbconline.org)

3. 4/5학년 크리스마스 파티 (Zoo Lights, 12/7(목), 6-9pm @ Zoo)

4/5학년 학생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동물원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 카운터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학생 \$10, 어른 \$15, 문의: sarahm@vbconline.org)

4. 봄맞이 아동 뮤지컬 : 보물섬

1-5학년 어린이들이 만드는 봄맞이 뮤지컬 보물섬이 내년 4월 중순 무대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1월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7-8:15pm) Fellowship Hall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1월 6일 저녁 7시 벽난로방에서 부모님을 위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sarahm@vbconline.org 또는 michellecmoxley@gmail.com)

5. 대강절 화환 워크샵 (12/2(토) 6:45pm, 12/3(주일) 12:15pm @ Columbia A)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대강절 화환 워크샵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친구들이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화환을 만들고 예배에도 참석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의 안내 카운터나 교회 오피스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천사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 (Breakfast with an Angel, 12/9 (토), 9am @ Gym)

4세부터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함께 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요리, 게임 리더 등으로 행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Sarah Meeds(sarahm@vbconline.org)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AWANA/Promiseland 캐롤링 (12/10(주일), 1pm @ Hearthstone)

12월 10일 Hearthstone(Murrayhill)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캐롤링에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 크리스마스 음악 연주회 (12/10(주일), 4pm @ 대예배당)

다양한 악기와 음악가들이 펼치는 클래식 크리스마스 음악 연주회가 12월 10일 오후에 열립니다.(문의: hyewonkim08@gmail.com 또는 jens@vbconline.org)

9. 성탄 맞이 가족 섬김 행사 (Be the Gift: A Family Serve Event, 12/16 (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와 같이 나누고, 가장 크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는 가족 행사입니다.